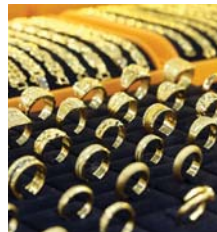


4일 Market Index			
▲ 코스피	2514.95	▲ 코스닥	828.52
	(+9.94)		(+1.28)
▼ 금리 (미국 9년)	3.531	▼ 환율	1304.00
	(-0.056)		(-1.80)



제주서 국내 첫 SAR 위성 발사

국내 최대 우주위성개발 업체 한화시스템이 자체 제작한 고해상도 지구 관측위성(SAR·합성개구레이다)이 발사됐다. SAR은 공중에서 지상·해양에 쏜 레이더의 반사파를 미세한 시간차로 합성, 지상 지형도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다. 4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 인근 해상에 위성이 하늘 위로 날아가고 있다.

/뉴시스

서든데스 경고 최태원 4인 부회장 교체 유력

SK그룹, 7일 임원인사 예고
대대적 세대교체 단행 전망
2인자에 사촌동생 최창원 거론
임원들도 대폭 물갈이 예상

SK그룹도 연말 대대적인 세대교체를 단행할 전망이다. 글로벌 위기 속 주요 대기업들이 안정적 쇄신을 선택한 가운데, 핵심 경영진 거취에 이목이 쏠린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최근 부회장단 4인과 면담을 통해 경영에서 물러나달라고 요청했다.

SK그룹 부회장단 4인은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 장동현 SK㈜ 대표와 박정호 SK하이닉스 대표 등이다. 부회장단이 퇴진하면 유정준 미주대외협력총괄과 서진우 중국담당도 동반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SK그룹은 오는 7일 임원 인사 발표가 유력하다. 다만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되는 만큼, 시기가 변경될 가능성도 외면하기 어렵다.

SK그룹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12월 첫째주 목요일에 임원 인사를 발표했지만, 계열사별로 이사회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최태원 ‘서든 데스’ 위기감

최태원 회장이 최근 ‘SK 최고 경영

자(CEO) 세미나’에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빠르고 확실하게 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서든 데스’를 언급하면서 대대적인 개편 의지를 암시했다. SK그룹은 2016년 당시에도 60대였던 부회장단을 대거 교체하며 40대였던 현재 경영진으로 세대교체를 단행한 바 있다.

실제로 부회장단은 1960년대 초반생들로, 모두 60대에 들어섰다. 조 의장이 63세, 김 부회장이 62세, 장 대표와 박 대표가 각각 60세다. 유정준 총괄이 61세, 서진우 중국담당도 62세다.

이미 다른 대기업들도 최근 인사를 통해 세대 교체에 나섰다. LG그룹은 권영수 부회장이 물러나고 LG디스플레이 등 계열사들도 새로운 경영자를 선임했다. 현대차그룹도 임원 인사에 앞서 현대모비스와 현대제철 수장을 교체하며 세대교체를 예고한 상태다. 삼성도 안정 속 젊은 차기 경영자를 대거 중용했다. SK그룹도 세대교체가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 재계 2위 올렸지만 위기 대처 못해

SK그룹 부회장단은 2016년 이후 주요 계열사를 두루 맡으며 SK그룹을 진두지휘해왔다. 공격적인 M&A와 체질 개선을 통해 SK그룹이 재계 2위로 올라서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3면에 계속)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경기불황에 ‘희망퇴직 카드’ 꺼낸 유통가

GS리테일·11번가 등 희망퇴직 실시
내수침체에 인건비 줄여 수익 모색

경기불황에 따른 임금, 물가 상승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내수침체로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유통업체가 희망 퇴직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섰다. 인건비를 줄여 조직을 보수적으로 운영해 수익성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연말연시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각 유통사들의 내부 분위기는 매섭기만 하다.

4일 유통업체에 따르면 GS리테일, 11번가, SPC, 매일유업, 롯데홈쇼핑 등이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나섰다.

우선 SPC 계열사 중 파리크라상은 4개 브랜드에 대한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다. 사유는 원재료비, 인건비 등 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함이다. 15년차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최대 1년6개월치의 급여와 1년치 학자금 지원된다.

롯데홈쇼핑 역시 지난 9월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대상

은 만 45세 이상이면서 근속연수 5년 이상인 직원이다. 퇴직자에게는 2년치 연봉과 재취업 지원금, 자녀 교육 지원금이 지급됐다.

롯데홈쇼핑 측은 “유통·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변화의 목적으로 자발적 희망퇴직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의 계열사로 롯데시네마와 롯데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고 있는 롯데컬처웍스도 지난달 29일부터 희망퇴직을 신청받고 있다. 입사 3년차 이상 직원 대상이다.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을 두고 퇴직위로금과 재취업 준비금을 지원하는 조건이다. 롯데컬처웍스의 희망퇴직은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다.

같은날 부터 롯데마트도 전 직급별 10년차 이상 사원 대상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퇴직 확정자에게는 최대 27개월 치 급여와 직급에 따른 재취업 지원금 2000만~50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SK그룹의 오픈마켓 계열사 11번가는 지난달 27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11번가가 희망퇴직을 실시

하는 것은 2018년 창립 이후 처음이다. 만 35세 이상, 근속연수 5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이다. 회사 측은 “회사와 구성원 모두 지속해서 성장하고 생존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GS리테일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GS측은 “복리후생제도의 일환으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라는 설명이다.

매일유업 역시 지난 8월 만 50세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희망퇴직자는 법정 퇴직금 이외에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통상임금 18개월치를 위로금으로 받게 되며 퇴직 후 2년 동안 경조사 시 물품을 제공받고 회사 측에서 재취업 교육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 유통업체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선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유통업체가 보수적이어도 직원들은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는 마인드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장 포화 등으로 IMF 구제금융 때보다 더 최악인 상황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비서실장의 정무직 공직자 인선 브리핑에서 후보자들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경제부총리 최상목, 국토부장관 박상우 지명

尹 정부, 내각 2기 시동
여성장관 후보도 3명 발탁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에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개각은 상당수 부처 수장을 한꺼번에 교체해 사실상 윤석열 정부 내각 2기 출범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을 기점으로 2기 내각을 차례차례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2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무직

장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최상목 후보자에 대해 “정통 경제관료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1차관을 거쳐 거시금융 등 경제 전반에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을 가진 경제정책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는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을 발탁했다.

김 비서실장은 박상우 후보자에 대해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기조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정통 관료로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했다”며 “국민 주거 안정과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후보자 중 가장 젊은 70년생으로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업적을 쌓고 원만한 조직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며 “해양수산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어촌활력, 해양바이오 육성 등 현안,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면에 계속)

/박정익 기자 pathfinder@



▲ 이낙연, 신당 창당설에 “기다림에 바닷… 때가 되면 말할 것”

/사진 뉴시스

▲尹, 정책실장 배우자에 “부군 집에 일찍 못 들어오더라도 잘 부탁”

▲군, 고체연료추진 우주발사체 3차 시험 발사

▲민주 비명계 연쇄 탈당, 이달 중순 ‘분수령’



▲홍익표 “연합 비례정당 필요성 있지만… 위성정당 논란 피하기 어려워”

/사진 뉴시스

▲여 지도부 ‘희생’ 미상정에 혁신위, ‘김기현 사퇴·비대위 전환’ 카드 만지작